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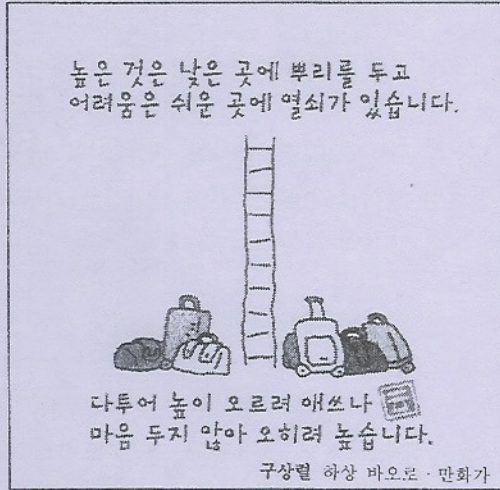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성 요셉 성월)
제28권 15호 (가해) 2008.3.9

[묵상]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그 시작은 낮은 곳에 있고
아무리 넓은 것이라도
그 시작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 옛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창세 11,4) 하며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 올렸던
바벨탑의 주인공들...
탑 위에 올라서니
그 또한 땅의 한 부분이었음을...
가장 낮출 때 가장 높아짐을 아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홀로 높이시니라.(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종돈 스테파노, 유인연 율리아나
특전미사	(생)최미예 카타리나와 앤과 티나 구마리아네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 일 낮 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준주, 이옥순 마리아, 김용팔 다두, 이은환 야고보 신임순 안나, 한민교 세례자 요한, 윤영인 안나 이요셉과 이마리아, 금석주 모이세 (생)이세희 프란체스카, 최미예 카타리나와 앤과 티나 이종민 요셉,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민봉식 야고보 박정람 마르시아 가정, 김석분, 오준석 비오, 권순봉 요안나 서희준 마테오, 김영남 레지나 가정, 김대우 비오 가정 박진숙 엘리사벳, 신덕래 테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Ezekiel) 37,12-14
화답송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나이다. <전례성가 66, 사순 제5주일 가해 참조>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져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제 2독서	로마서 (Romans) 8,8-11
복음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 음	요한 (John) 1,1-45<또는 11,3-7.17.20-27. 33-45>
영성제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0	157
봉헌	364	188,187
성체	367	292,299
파견	151	154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2) 9가지 봉사의 은사 : 1코린 12,8-10

⑧ **이상한 언어의 은사** (gifts of varieties of tongues) : 이 은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상한 언어', 또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심령기도', '심령노래', '심령예언' 등이 포함된다. 이 은사는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은사 중의 하나이다. 때로는 언어라기보다 이상하고 놀라운 '소리'나 '노래'로 표현되기도 한다. 심령예언은 예외이지만 이상한 언어의 대상은 주위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신자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은사가 개인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다.(1코린 14,1-25 참조)

심령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며,(로마 8,26-27) 내용은 대부분 찬미와 감사이지만 청원의 내용도 있다.(사도 10,46; 1코린 14,16-17; 로마 8,26-27 참조) 심령노래는 찬미가와 영가의 형태로서(골로 3,16), 멜로디까지도 은사적으로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성령기도 모임에서는 아름다운 화음과 조화가 일어난다. 이는 마치 아직 말을 못하는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칭얼거림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심령기도와 심령노래는 신자 개인의 기도생활에 있어서 ①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낄 수 있으므로 오래 기도할 수 있고, ②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며, ③ 소리기도(염경기도)나 묵상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④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표현법을 제공하며, 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⑥ 관상기도와 같은 효과를 줌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①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을 주고, ②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며, ③ 다른 봉사는사를 받도록 도와주고, ④ 어둠의 세력과 투쟁에 있어 좋은 무기가 되어주며, ⑤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⑥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며 내적 치유의 효과가 있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반에 걸쳐 성령 기도회에 유익하고, 교회의 성장을 도와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한 봉사(1코린 2,4-5)를 촉진시키고, 공동체를 위한 강력한 중재기도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심령기도(노래)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마음을 모두 열고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은사를 구할 것이며, 이 은사를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께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언제나 이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계속 / CBCK + 박신부 제공)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요한 11,39). 분노가 담긴 절규에 가까운 마르타의 외마디 탄식이, 되돌려놓을 수 없는 죽음의 차가운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 어떤 인간적인 친분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다니! 죽음 앞에서 큰소리칠 자 누구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몬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은 라자로 소생 이야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한 마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데서 찾아집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마리아, 마르타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요한 11,32)라고 말할 정도로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실망과 좌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구심과 주저함의 참담한 순간을 겪어 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명의 주관자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되살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몸소 사시게 될 그분의 부활을 예표(豫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라자로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타와 마리아가 흘려야 했던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두 자매의 가슴을 짓누르던 깊은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을 밝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가 다시 얻은 생명은 일시적으로 지속되게 될 한시적인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불멸하는 생명의 힘'(히브 7,16)은 세례의 은총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지금 그 생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매순간이 의구심과 의혹으로 점철되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 불안의 끝자락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름돌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탄식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의구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의 지평선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희망을 받쳐 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 퇴색치 않는 희망을 안겨 주어 절망의 끝자락이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래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강정현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 지난 주간 합계: 5,197단 ☞ 총 합계: 263,907단

 ☆ 사 순 ☆
 ☆ 제 5주일 ☆
 ☆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사순절,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순절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분과 함께 지냅니다. ☆

- ◆ 평일 저녁미사 → 아침미사로 일시 변경
 사순 판공성사 일정으로 인해 3월 첫째주에 이어 둘째주 평일 저녁미사도 아침 8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 12일(수), 13일(목) : 오전 8시30분
- ◆ 구역별 사순피정
 ● 하버/카슨, P.V구역 : 3월11일(화) 오후 7시~9시30분
- ◆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 14일) : P.V. 구역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0일)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백삼위 본당 사순 판공성사 3월12일(수)
 ● 오후 7시부터 : 참회예절(주일학교는 강당에서)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9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만장, 계시관안내 참조

-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3월20일 오후 8시(교중미사)
 †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절 : 3월21일 오후 8시
 †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3월22일 오후 9시(교중미사)
- ◆ 부활 대축일 미사(3월23일)
 - 학생미사 : 오전 9시 30분 ● 교중미사 : 오전 11시

- ◆ 제 6차 Homeless People 봉사
 본당 사목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실천해온 무숙자들을 위한 음식봉사와 이발봉사가 이번 달로 6회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주일(9일) 오후 4시, 롱비치 무숙자 센터
 ● 이발봉사 월 2회 :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문의 : 박홍룡 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310-283-587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an Diego) 신청접수 중
 - 주제 : "Witness"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170
- ◆ 백삼위 한국학교 SAT II 모의고사 실시
 - 3월30일(주일) 낮12시~1시30분, 강당
 - 보조교사 찾음 : 자격은 10학년~11학년 사이의 학생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순복	구자운	김광자	김교복	김선제
	김선희	김완태	김원모	김일선	김종환	김주량
	김철민	김충섭	김태호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봉식	민성원	민찬기	박순구
	박영룡	박영수	박재철	박정희	박홍룡	방세훈
	방정복	서희준	신경훈	신순희	엄지선	엄혜은
	오진	오일순	오진자	오태환	유인섭	유정복
	이경용	이근모	이기성	이민상	이석제	이영석
	이은록	이호미	익명	익명일	익명이	장숙환
	장영진	정연영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최귀환
	최재은	최현찬	한금순	홍기주	홍윤정	황학수
	가보라영희					
합계 : \$6,225						
미사헌금 : \$2,655.05 2차헌금 : \$1,074						

성전헌금	강순복	구자운	김광자	김교복	김선제	김원모
	김일선	김종환	김주량	김철민	김충섭	김태호
	남명자	노천수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봉식
	민찬기	박순구	박영룡	박재철	박정희	박홍룡
	방세훈	서희준	신경훈	엄혜은	오진자	오태환
	유정복	이경용	이근모	이기성	이민상	이석제
	이영석	이은록	이호미	익명	장숙환	장영진
	정훈모	주대중	최귀환	최재은	최현찬	한금순
	가보라영희					
합계 : \$4,010						
* 교무금과 성전헌금 명단에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 **청소년 찬미의 밤 (Praise Rally)에 초대합니다.**
- 일시 : 3월15일(토) 오후 7시30분~10시
 - 대상 : 6학년~12학년 ● 주제 : "Raise Your Palms"
 - 장소 : 성 라파엘 성당(12366 Rosecrans Av. Norwalk)
 - 카풀 희망자는 오후 6시15분까지 본당 주차장에 오세요.
- ◆ **성삼일 전례봉사자 회의**
- 3월19일(수) 오후8시, 성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전례봉사단
-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휴강**
- 성주간 전례관계로 '거룩한 독서'를 2주간 휴강합니다.
- 수요일 : 3월12일, 19일
 - 금요일 : 3월14일, 21일
- ◆ **은퇴계획 전략과 효율적인 기부금 증여 방법 세미나**
- 3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 강사 : 월터 최 변호사(기부금, 상속계획 전문)
 - 조장희 은퇴계획 전문가(존행록 매니저)
 - 주관 : 사목회 ☎ 213-819-4242 부총무 박상진 바오로
- ◆ **성주간 전례 합본 매일미사책 구입하세요.**
- 성삼일(3월20,21,22일 목금토)은 예수부활과 수난에 참여하는 연중 가장 거룩하고 뜻깊고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 전례가 매일미사 3월호에 합본돼 나왔습니다. 미사책을 구입해서 전례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합본 특대호 가격 \$5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9일(주일) : 하버/카슨 2반 (도시락 \$3)
 - 3월16일(주일) : 토런스 동 2반 (우거지국밥 \$3)

남가주 소식

- ◆ **성유 축성 미사**
- 3월17일(월) 오후 7시
 -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 **제11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 4월29일(화) 오전 11시 등록, 티오프 낮 12시(샷건)
 - Westridge 골프코스(1400 S. La Habra Hills Dr.)
 - 회비 : \$120(미주 가톨릭 방송 기금 모금)
 - 주관 : 남가주평신도협의회 ☎ 213-272-7453 김춘식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유철희 바오로 320-3697 3/8(토)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534-3191 3/8(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3/14(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송죽 헬레나 213-820-4704 3/8(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권영옥 루시아 720-2876 3/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배난군 세레나 325-7733 3/13(목)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형선 올리아나 328-8351 3/5(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김병태 요셉 327-1658 3/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유영균 우르바노 325-8055 3/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3/7(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아버지를 팝니다.

어느 날, 신문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광고에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일십만 원(100,000원)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혀를 끝끝 차며,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저 아버지를 팔아먹어 그래!” 하며 역정을 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속덕거렸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설움을 지녔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광고 낸 사람의 주소로 달려갔다.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은 부부는 심호흡을 머금고 초인종을 눌렀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다.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쑼을 드리자,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며 집안으로 안내를 했다. 그 곳은 아주 부잣집이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젊은 부부는 모두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설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아물러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내겠느냐고.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달려왔다고 하였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한다. 젊은 부부는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담은 흰 봉투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어 놓는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을 오라고 하였다.

일주일 후, 젊은 부부는 다시금 그 집을 찾았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하시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려 오너라.”고 하신다. 깜짝 놀란 부부는 양자를 데려오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가 되었다.

젊은 부부는,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 가서야지요,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집했다. 할아버지는 진정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기뻐하시며 자식들의 절을 받았다.

◆김기성 목사 / 가정의 날 수상작

☞ 노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맞아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도록 합시다.